

# 부처든 마구니든 내동댕이 칠 수 있어야...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는 것’이 된다.

말할만한 어떤 법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곧 <금강경> ‘사구계’에서 사도(邪道)라고 이른 ‘음성으로써 부처님을 찾는 것’이 된다. 음성 이든 뭐든 일체가 부처 아닌 것이 없는 줄 알면 그만이다. 나중에는 부처든 마구니든 싸잡아 내동댕이칠 수 있어야 한다. 흔적 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이 선(禪)의 본령이다.

내가 있다는 견해를 버리면, 곧 처소(處所)의 한정이 없게 된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바로 마음이다.

내가 있다거나 법이 있다고 한다면, 곧 나라고 하는 것 혹은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어디에 머물게 된다. 불법은 머무는 바가 없어서, 육조스님께서도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나쁜 법이든 온통 한마음이어서, 달리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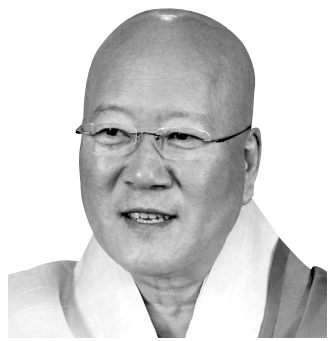
이 마음법을 부촉하노니  
법, 법 하지만 어찌 법이 있을손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마음,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열반묘심을 전할 때, 실제로는 한 티끌이라도 전한 바가 없다. 본래 다 갖추어진 것을 스스로 자각 하게 해준 것일 뿐, 달리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 완벽하게 갖추어 쓰고 있는 마음은 부처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중생이라고 해서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전하고 받고 하는 법이나 본심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을 전하는 바 없이 전하는 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역대 불조께서 열반묘심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바이다. 다만 법부는 이 말을 배워서 따라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계합하여 흔쾌해지도록 정진해야 한다. 위의 계승에서 앞의 두 구절은 석존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실 때 전법계의 일부이다. 뒤의 두 구절은 서천 4조와 6조의 계승에서 따온 말이다.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는다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 뽑는 선불장(選佛場)이란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장소다. 일체 시비와 사랑 분별이 끊어진 진리의 도량인 것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런 도량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는 비록 허망한 것들이 와도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정정해진다. 마치 허공에는 한 물건

##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1)



범이사 주지

법이나 본심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법·마음 전하는 바 없이  
전하는 도리를 알게 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곳  
진정한 도량임을 알면,  
어디를 가나 걸음걸음마다  
연꽃 피는 정토가 된다

불법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 붙일 수 없는 것  
미혹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 다함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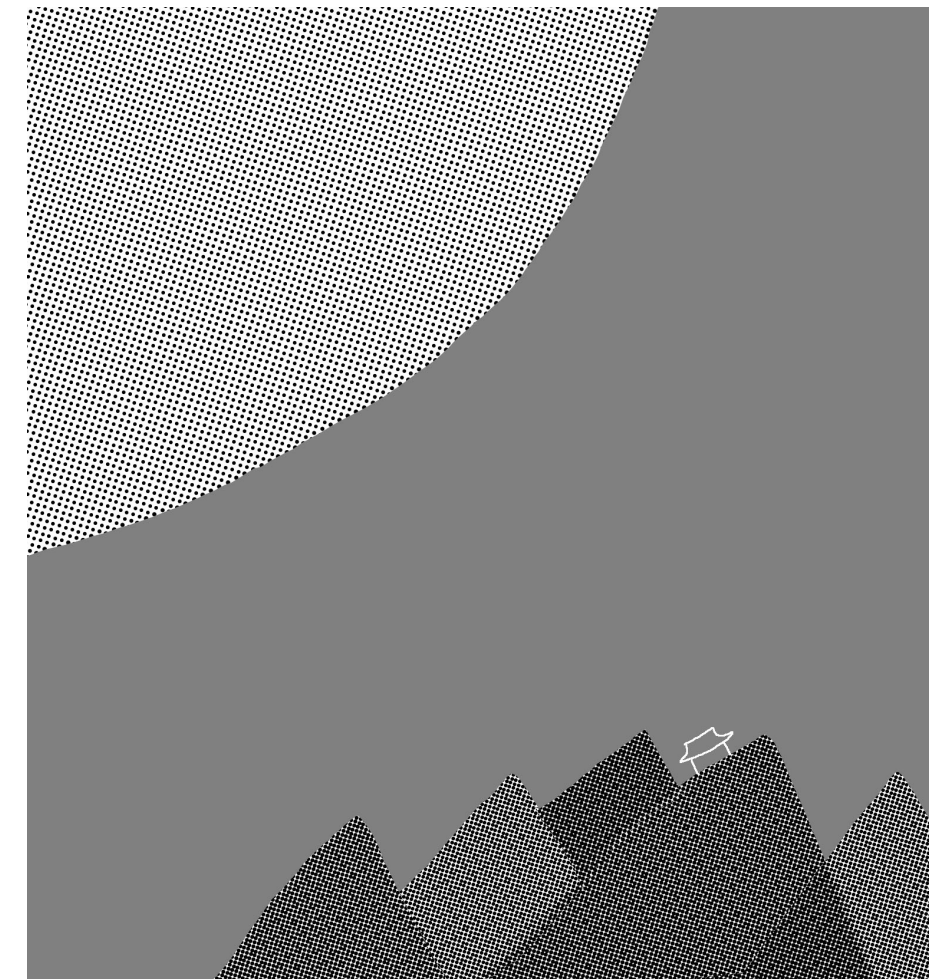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참된 공부인이라면 늘 그런 도량에 앉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잘 실패 쓰면서, 모든 대중을 공경하고 원만하며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진정한 도량임을 알면, 어디를 가나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는 정토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 연(緣)이 곧 정토다. 당당하고 무애자재한 대자유인의 삶이 펼쳐진다.

법이 본래 공(空)임을 깨닫는 것을 공여래정(空如來藏)이라 한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겠는가?’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유훈자적하게 소요할 뿐 다시 무슨 말을 하라.

내년의 청정도량이 밝아지면, 그곳에는 제도할 중생이라곤 하나도 없다. 법은 본래 공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담담하고 청량한 기운으로 그저 인연 따라 임응 등 흘러가면서, 이런 소식을 알게 해주신 불법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게 공부 가 더 깊고 넓어져 가는 것이다. 아까 배후거사도 황벽스님의 단편을 받고, 만년에는 유유자적 소요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배후거사의 묘소는 위산에 있다. 황벽스님이 돌아가신 뒤, 당대의 선지식인 위산스님에 의지하여 만년을 보냈던 것이다. 황벽과 위산은 둘 다 백장의 제자로서, 사형사제간이었다. 위산의 법은 양산으로 이어져 위양종을 이룬다.

## 9. 본래무일물

배후가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음을 과연 옳은 것입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거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겠는가?’ 하는 육조스님의 유명한 계승은 신수스님의 ‘부처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는 계승에 대응해서 한 말이다.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유위(有爲)의 입장에서 뭔가 노력하려는 신수스님의 입장에 대해,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무위(無爲)의 도량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수스님의 견해에 상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아직 ‘무일물(無一物)’의 ‘없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육조스님은 그 후 오조 홍인스님께서 따로 불려서 <금강경>을 설해주는 인연에 힘입어, ‘있고 없음’의 상대적 없음마저도 싹 지워버렸다.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깨달음이란 옳은 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옳이 없는 것도 없다.”

육조의 법을 잇게 되는 남악회양(南嶽懷讓) 스님이 스승을 참배한 자리에서 “어떤 물건이 왔고?” 하는 질문을 받고, 8년간 궁구한 끝에 “실사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여 인가를 받았다. 불법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이 붙을 수 없는 것이다. 미혹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7



## 조작됨 없는 마음서 자비심이 일어나네

<천수경>

사트바(sattva)로 가는 길

힌두교의 성전으로 <바가바드기타(Bhagavadgītā?)>라는 책이 있다. 줄여서 ‘기타’라고 부르는, 이 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 1992년의 일이었다. 그 사이 오늘날까지 읽고 또 읽고, 강의하고 또 강의하고, 쓰고 또 쓰고 있다.

불교경전도 아닌 책을, 그렇게까지 빠져서 읽고 쓰고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처음 이끌리게 된 것은, 이 책에 ‘행위의 길(까르마 요가)’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젊어서부터 기본적으로 ‘행위주의자’였다.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주로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행위의 문제를 힌두교의 성전인 <기타>에서의 그것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 일본의 한 시골에서, 말하자면 폐관(閉關)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의 짐 속에는 이 “기타” 관련 책들만이 있었다.

지난 5개월 동안, 다시 처음부터 정독을 하고 있다. 거의 다 읽어가는 데, 새롭게 느끼는 것은,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세가지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다. “기타”에서는 사트바, 라자스, 그리고 타마스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사트바는 순수함, 라자스는 격정, 그리고 타마스는 어둠으로 상징된다. 예를 들면, 제사나 고행이나 보시 등의 행위 역시 이러한 세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라자스적인 행위나 타마스적인 행위는 피해야 하고, 순수한 사트바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트바, 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이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순수, 적정, 청정, 평화 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사트바에서 나온 행위

<기타>를 말하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나는 <천수경> 역시 말해오고 있다. <천수경>은, 실려모로 <기타>와 비슷한 텍스트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사트바’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찬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천수경>에서는 사트바적인 마음을 ‘무위심(無爲心)’이라 말하고 있을 뿐이다.

헐떡거리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조작해야 하고, 작위적인 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는 ‘라자스(rajas)’적인 것이라 말한다. 또 행위를 하기는 하되 언젠가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것은 ‘타마스(tamas)’적이라 말해진다.

라자스와는 반대로 사트바는 적정하며, 차분하고, 고요하다. 또 타마스와는 반대로 사트바는 밝고, 명량하며, 쾌활하다. 사트바는 그런 개념이다.

이번에 <기타>를 정독하면서, 나는 새삼



그림 · 박구원

깨닫게 되었다.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라자스적이고 타마스적인 데에서 사트바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을까.

사트바적인 마음,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행위 역시 자비로운 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트바적인 행위가 되려면, 역시 사트바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 밖에 수행이 없다.

물론, 깊이 더 따지고 들어가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트바적인 마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심이 완전히 같은가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같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이제 나는 좀더 사트바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트바적인 삶을 살고 싶다. 무위심으로 돌아가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군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